태권도원서 촬영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명인관 내 일여헌, 청와대 상춘재로 묘사… 주요 국면 등장 드라마 완성도 높여

지난달 28일 오픈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돌풍'이 14개국에서 TV 시리즈 부문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촬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총 12부작인 '돌풍'은 설경구·김희애·김미숙 씨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로 국무총리 역에 설경구 배우가, 경제부총리 역에 김희애 배우, 비서실장 역에 김미숙 배우 등이 출연하며 오픈 전부터 기대를 모아 왔다. 특히,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은 드라마에서 청와대 상춘재로 묘사되며 주요 국면에 등장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돌풍' 드라마의 무대가 된 태권도원 '명인관'은 일여헌을 비롯해 백운정, 태권루 그리고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여헌'은 태권도 관련 주요 의사결정 회의를 비롯해 2021년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2024년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 등이 열린 장소로 한옥 전통 양식에 현대적 감각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일여헌과 연결된 작은 문을 지나 자리하고 있는 '백운정'은 자연과 더불어 명상과 사색의 공간으로 마음의 쉼을 주는 정자이고 '태권루'는 누각으로 백운산 자락의 바람을 마시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공간'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 세계화 등에 기여한 태권도인 31분을 모시고 있는 경건한 장소이다.

태권전과 명인관 전경

올해 들어 KBS 1박 2일, 유튜브 채널 강호동 네방네 등이 명인관과 전망대 등 태권도원을 무대로 촬영과 방송을 진행했고 답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은 세계태권도성지이자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관광 명소로서 태권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미디어 노출에 협력하고 있다"며 "태권도원만이 가진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즐길 거리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출되어 태권도원을 비롯해 국기 태권도가 더욱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원에서의 각종 미디어 촬영과 관련한 문의는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마케팅부(063-320-0121)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추가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16일까지 4개 분야 접수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는 9~16일까지 자원활동가 '소리천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8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소리천사'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소리축제의 자원활동가로, 축제 시작 하루 전날부터 활동을 시작해 축제장 곳곳에 배치돼 관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추가모집은 △기획팀 △무대팀 △행사팀 △홍보팀 등 총 4개 분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소리천사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소리천사' 전용 페이지(www.sorifestival/angel)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소리축제 측에 별도 문의를 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며, 합격자 결과는 19일 오후 5시 발표된다.

선발된 '소리천사'는 오리엔테이션 및 팀별 세부 교육, 발대식 등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활동을 한 소리천사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다. 또한, 봉사 활동 기간 중에는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유니폼, 가방, ID카드, 폭염 대비 물품 등이 함께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천사 전용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ange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063-252-835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문화장터' 현장서 사용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0일 군산 · 17일 익산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군산 및 익산에서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 군산 서수면 주민센터와, 17일 익산 모현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공예품, 캠핑용품,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엄선한 다양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총 17회의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 한해, 현장 8만원 이상 결제 또는 카드 전액 소진 시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도내 약 14만 명의 대상자에게 전년 대비 2만원 상향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교육문화팀(063-230-745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 지역 예술 꽃 피운다

문화예술공간 오늘서 9월 6일까지 '여름에 피어난 예술, 하개' 전시

익산 지역 예술가들이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동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여름에 피어난 예술, 하개(夏開)' 전시를 진행한다.

'여름에 피어난 예술, 하개(夏開)'는 총 6명의 지역 작가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여름의 자연과 활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김금란, 조모금, 권아리, 김선경, 최승일, 문화인이며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작가와 시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들이 전시 기간 상주해 예술적 열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은 이를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도 함께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시에 참여한 김금란 작가는 "관람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시는 작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직접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아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20일 '마술愛풍선이 빠지다'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20일 15시 강당에서 '마술愛풍선이 빠지다'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마술과 풍선의 만남으로, 60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풍선공연에 관객이 직접 참여해 몰입도를 높인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가족들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공연도 관람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 예약은 7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